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순희¹ · 이영주² · 김숙영³ · 김신정⁴

¹국립충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신흥대학 간호과 부교수, ³서울여자간호대학 부교수, ⁴한림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in Migrant Workers

Lee, Soon-Hee¹ · Lee, Young-Joo² · Kim, Sook-Young³ · Kim, Shin-Jeong⁴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ju National University, Chungju

²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heung College, Uijeongbu

³Associate Professor,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Seoul

⁴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Chun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llect basic data on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in migrant workers. **Methods:** Between August, 2007 and January, 2008 171 immigrant workers completed data collection using a questionnaire. Workers were recruited from 2 churches, one in Seoul and the other in Gyeonggi Provinc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average score for social support was 3.73 (± 0.65) and for acculturative stress, 2.52 (± 0.6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cculturative stress according to gender ($t=2.152, p=.033$), kind of job ($t=2.597, p=.040$), and have community or not ($t=2.899, p=.005$).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r=-.270, p=.001$). Factors influencing acculturative stress were existence of participants having a community of people from their home country or not ($R^2=.151, p=.002$). **Conclusion:** More studies are needed to identify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acculturative stress in immigrant workers.

Key words: Social support, Acculturative stress, Migrant worker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1987년 이후 국내 노동인력의 임금상승과 3D (Dirty, Dangerous, Difficult)업종의 기피 풍조로 인하여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한 이주 노동자는 매년 급속히 증가하여 2006년 기준으로 약 408,915명에 이르고 있으며(Kim & Kim, 2008) 외국인 노동자의 계속적인 필요와 요구에 따라 정부는 2004년 8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미비하여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49.5%

나 되는 불법 체류자의 법적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한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가 문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절도, 마약 같은 범죄 발생이 주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Kim, 2005). 이와 같이 반사회적 행동의 범죄가 나타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고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책이 미흡함을 반영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화와 다른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개인들은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Lee, 2004).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타 문화로부터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 지각된 차별, 정체성 혼란, 사회 경제적 지위 그리

주요어 :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외국인 노동자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Shin-Jeong

Department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1 Okcheon-dong, Chuncheon 200-702, Korea
Tel: 82-33-248-2721 Fax: 82-33-248-2734 E-mail: ksj@hallym.ac.kr

투고일 : 2009년 5월 13일 심사회의일 : 2009년 5월 20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2월 15일

고 자신의 지지 체계를 잃은 상실감 등으로 인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한다(Kim, 2005)는 것이다. 특히 단일 문화와 민족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경험하는 차별, 편견, 언어 갈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은 노동자의 문화적응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Lee, 2004).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면서 사회적 지지의 상실, 경제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의 영향은 우울이나 불안, 초조함, 식욕상실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도 타 문화로부터 이주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Griffin & Soskolne, 2003; Hovey & Magana, 2000; Kim, 2001; Li, 2003).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특히 교육, 연령, 성별, 다중문화의 이전 경험, 접촉경험, 언어와 같은 개인적 대처자원이나 사회적 지지에 의해 경감될 수 있다(Noh & Avison, 1996).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이주자의 개인적, 사회적 대처자원들 중 특히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Choi, 2001), 이주자의 우울, 불안 수준을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이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Lee, 2004). 또한 이주 노동자는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국 공동체에 편입하거나 자국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Lee, 2004). 자국인은 친밀감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집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해주는 등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결속 관계 안에서 개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타인에 대한 애정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의 지지적인 작용을 통하여 한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얻는 긍정적인 자원으로(Cui, Jin, & Oh, 2005)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좌절을 극복하고 문제해결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강화시켜준다(Lee, 1996).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된 지금,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고찰한 Kim과 Kim (2008)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결혼상태, 이직경험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사회적 지지 중에

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정서적, 물질적, 도구적, 정보적 지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Kim (2008)의 연구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과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될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Kim, 2003), 주한 외국인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Choi, 2001), 한국에서 조선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Choi, 2008),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Lee, 2004),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예측요인(Kim & Kim, 2008),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Kim, 2008)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는 사회적 지지 혹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각각에 대한 연구이거나 대상자가 조선족으로 제한적이거나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같이 부분적 내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교육, 연령, 성별, 다중문화의 이전 경험, 접촉경험, 결혼상태, 이직경험,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 한국어 수준, 체류 상태등과 같은 변수(Choi, 2001; Kim, 2008; Kim & Kim, 2008; Noh & Avison, 1996)를 모두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연구보고가 있음에도(Choi, 2001) 관련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관계와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계속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와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날로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자가-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비확률적 표집방법인 임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외국인 노동자는 일정기간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Lee, 2004)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지원 단체들과 종교단체의 협조를 구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무료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외국인 노동자 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성인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도구는 Park (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로서 기능적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묻는 25문항과 구조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으로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묻는 25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정서적 지지 8문항, 정보적 지지 5문항, 물질적 지지 6문항, 평가적 지지 6문항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 당시 신뢰계수 Cronbach's $\alpha=.939$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계수 Cronbach's $\alpha=.965$ 로 높게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도구는 Sandhu와 Asrabadi (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

dent를 Lee (1997)가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 조선족이나 몽고족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인종 및 피부색과 관련된 2개 문항을 삭제하여 총 3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로 구성된 Likert식 5점 평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는 차별감 6문항, 향수병 5문항, 적대감 5문항, 두려움 3문항, 문화충격 3문항, 죄책감 2문항, 기타10문항 일곱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남한이주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Lee (1997)의 연구에서는 .935, 중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Noh (2007)의 연구에서는 .918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47로 나타났다.

4.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2개의 무료 건강검진센터의 센터장에게 전화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다시 설명하고 최종 허락을 받았으며 절차상 공문을 띄워 서면으로 허락을 받았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 4명과 2년간 자원봉사자의 경력이 있는 연구보조원 4명을 훈련하여 총 8명이 참여하였다. 자료 수집 전에 자료 수집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지 각 문항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3회 가졌으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다시 확인하는 훈련을 하였다. 즉, 자료 수집자들은 본 자료 수집을 실시하기 전 구조화된 질문에 대해 문항 이해에 대한 객관성, 의사전달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모의상황을 설정하였다. 그런 후 총 8명의 자료 수집자가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가 응답하는 것을 보고 해당 점수간에 체크하도록 한 후, 설문이 끝나고 각 문항에 대해 점수를 체크한 것에 대한 일치도를 계산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일치도가 98.3%임을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다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 수집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설문지에 대한 응답은 한국어 설문이 가능한 조선족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몽골, 베트남 국적의 한국어 이해가 힘든 대상자의 경우에는 한국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해당 국가의 모국어와 우리나라 말 사용이 동시에 가능한 대상자와 같은 국적의 통역자가 대신 통역을 맡아 응답해주었다. 이들 통역자는 해당국가의 모국어와 한국

어가 모두 원활하고 능숙하다고 기관을 통해 소개를 받았는데, 이들은 기관에서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많은 행사에 통역을 맡고 있었다. 통역자는 5개국의 각 나라당 1명으로 총 5명이었으며 이때 통역을 하는 사람에 따라 자료 수집 과정에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자 4명은 사전에 통역자에게 설문지를 보여주고 각 문항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3회 가졌으며, 대상자에게 직접 면접을 하는 것처럼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내용과 불일치를 보인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주었다가 연구자가 문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여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였다.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면접조사를 통하여 곧바로 수거하였으며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0-40분 정도이었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200부이었으며 진료시간이 되어 중간에 면접을 종료하였거나 약속시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 중간에 포기한 경우, 또는 답변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71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는데,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와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본 연구 대상자는 총 171명으로서 남자가 52명(30.4%), 여자가 119명(69.6%)이었다. 대상자의 연령은 15-79세의 범위로 평균 47.4(± 13.7)세이었다. 대상자의 국적은 중국이 125명(7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인도네시아가 15명(8.8%), 몽골이 11명(6.4%), 베트남이 9명(5.3%)의 순이었다.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이 73.5%로 가장 많았으며 36.8% (63명)가 종교가 있었는데, 종교가 있는 경우는 기독교가 66.7%로 가장 많았고 이슬람이 8.2%, 불교가 6.4%, 천주교가 4.8%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71.9%가 기혼상태이었으며 학력은 중졸 이하가 35.0%, 고졸이 45.4%, 대졸 이상이 19.6%의 상태이었다. 대상자의 36.8%가 요통이

나 근육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흡연은 20.7%, 음주는 27.5%가 하고 있었다. 한국에 거주한 지는 1개월-11년의 범위로 평균 42.1(± 32.1)개월이 경과되었으며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가정부나 파출부가 30.4%로 가장 많았는데, 공장이나 건설 노동자가 27.3%, 기타(베이비시터, 미싱사, 용접, 닥치는 대로 함)가 21.1%, 식당에서의 종업원이 19.3%, 간병인이 1.9%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월 소득은 평균 118.4(± 35.2)만 원이었으며 100만 원 미만이 37.1%를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은 여가시간을 '숙소에서 휴식' 한다는 경우가 51.6%로 가장 많았으며 본국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은 월 1-90회의 범위로 평균 8.6(± 11.9)회로 나타났는데, 월 5회 미만인 경우가 60.7%이었고 가족과의 연락방법은 대부분(70.9%)이 전화를 이용하고 있었다. 한국에 모국공동체가 있는 경우는 30.3%로 나타났다.

한국인 친구가 있는 경우는 70.9%이었으며 없는 경우는 29.1%로 나타났고 평균 한국인 친구 수는 6.7(± 11.5)명이었다.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다중 응답한 결과, 64명(37.4%)이 '의료혜택의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47명(27.5%)이 '모국에 있는 가족이나 모국에 대한 그리움', 34명(19.9%)이 '한국인들의 편견', 27명(15.8%)이 '신분상태의 불안정', 19명(11.1%)이 각각 '외로움', '불편한 주거시설'이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생활에서 외로울 때의 해결방법은 다중 응답한 결과, '모국친구들과 이야기한다'가 84.8%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동료들과 이야기한다'가 31.2%, '술을 마신다'가 23.3%, '상담소를 찾아간다'가 8.2%로 나타났는데, '혼자서 참는다'도 30.3%를 차지하였다.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평균 3.75(± 0.65)점,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2.52(± 0.65)점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보통 정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 정도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를 4개의 범주로 구분한 결과, 「평가적 지지」가 3.82(± 0.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정서적 지지」가 3.74(± 0.70)점, 「정보적 지지」가 3.72(± 0.71)점, 「물질적 지지」가 3.54(± 0.8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7개의 범주로 구분한 결과, 「향수병」이 3.00(± 0.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차별감」이 2.50(± 0.80)점, 「기타」가 2.49(± 0.69)점, 「문화 충격」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1)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Male | Female | Total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Male | Female | Total |
|------------------------------------|------------------------------|-----------|------------|------------|---------------------------------------|-------------------------------------|-----------|------------|------------|
| | | n (%) | n (%) | n (%) | | | n (%) | n (%) | n (%) |
| Age (yr) | <35 | 24 (46.2) | 16 (13.4) | 40 (23.4) | Monthly income | ≤ 100 | 23 (44.2) | 40 (33.6) | 63 (37.1) |
| | 35-<50 | 5 (9.6) | 29 (24.4) | 34 (19.9) | | >100 | 29 (55.8) | 79 (66.4) | 108 (62.9) |
| | 50-<60 | 17 (32.7) | 50 (42.0) | 67 (39.2) | Leisure time | Rest in one's dwelling place | 22 (42.3) | 66 (55.5) | 88 (51.6) |
| | ≥60 | 6 (11.5) | 24 (20.2) | 30 (17.5) | | Participating in religious activity | 6 (11.5) | 33 (27.7) | 39 (22.8) |
| Nationality | Chinese | 28 (53.8) | 97 (81.5) | 125 (73.1) | | Exercise | 10 (19.2) | 14 (11.8) | 24 (14.0) |
| | Indonesian | 11 (21.1) | 4 (3.4) | 15 (8.8) | Part-time job | Part-time job | 14 (26.9) | 6 (5.0) | 20 (11.7) |
| | Mongolian | 5 (9.6) | 6 (5.0) | 11 (6.4) | Contact with family | <5 times | 27 (51.9) | 77 (64.7) | 104 (60.7) |
| | Vietnamese | 3 (5.8) | 6 (5.0) | 9 (5.3) | | ≥ 5 times | 25 (48.1) | 42 (35.3) | 67 (39.3) |
| | Uzbekistani | 3 (5.8) | 3 (2.5) | 6 (3.4) | Communication with family | Telephone | 49 (94.2) | 72 (60.5) | 121 (70.9) |
| | Russian | 2 (3.8) | 3 (2.5) | 5 (2.9) | | Letter | 3 (5.8) | 47 (39.5) | 50 (29.1) |
| Religion | Christian | 9 (17.3) | 33 (27.7) | 42 (24.6) | Community | Have | 23 (44.2) | 22 (18.5) | 45 (26.3) |
| | Islam | 6 (11.5) | 8 (6.7) | 14 (8.2) | | None | 16 (30.8) | 69 (58.0) | 85 (49.7) |
| | Buddhist | 2 (3.8) | 2 (1.7) | 4 (2.3) | | Don't know | 13 (25.0) | 28 (23.5) | 41 (24.0) |
| | Catholic | 3 (5.8) | 0 | 3 (1.8) | Korean friends | Have | 39 (75.6) | 82 (68.9) | 121 (70.8) |
| | None | 32 (61.5) | 76 (63.9) | 108 (63.2) | | None | 13 (24.4) | 37 (31.1) | 50 (29.2) |
| Marital status | Married | 21 (40.4) | 102 (85.7) | 123 (71.9) | Number of Korean friends | ≤ 3 | 24 (46.4) | 65 (54.6) | 89 (52.2) |
| | Unmarried | 24 (46.2) | 3 (2.5) | 27 (15.8) | | ≥ 4 | 28 (53.6) | 54 (45.4) | 82 (47.8) |
| | Divorced | 1 (1.9) | 6 (5.0) | 7 (4.1) | Difficulty in Korean life* | Medical treatment benefits | 34 (65.4) | 30 (25.2) | 64 (37.4) |
| | Separated | 4 (7.7) | 2 (1.7) | 6 (3.5) | | Missing family members & country | 23 (44.2) | 24 (20.2) | 47 (27.5) |
| | Bereaved | 2 (3.8) | 7 (5.9) | 9 (5.3) | | Bias of Koreans | 20 (38.5) | 14 (11.8) | 34 (19.9) |
|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or less | 11 (21.2) | 49 (41.2) | 60 (35.0) | Instability to attain social position | Loneliness | 10 (19.2) | 9 (7.6) | 19 (11.1) |
| | High school | 33 (63.4) | 44 (37.0) | 77 (45.4) | | Uncomfortable living facilities | 8 (15.4) | 11 (9.2) | 19 (11.1) |
| | College or higher | 8 (15.4) | 26 (21.8) | 34 (19.6) | Solving method when lonely* | Talk with friends from home country | 32 (61.5) | 113 (95.0) | 145 (84.8) |
| Current smoking | Yes | 33 (63.5) | 2 (1.7) | 35 (20.7) | | Talk with working place friends | 38 (73.1) | 15 (12.6) | 53 (31.2) |
| | No | 19 (36.5) | 117 (98.3) | 136 (79.3) | | Keep one's temper | 20 (38.5) | 31 (26.1) | 51 (30.3) |
| Current alcohol consumption | Yes | 39 (75.0) | 8 (6.7) | 47 (27.5) | | Drink alcohol | 30 (57.7) | 10 (8.4) | 40 (23.3) |
| | No | 13 (25.0) | 111 (93.3) | 124 (72.5) | | Call on counselling center | 5 (9.6) | 9 (7.6) | 14 (8.2) |
| Number of years of living in Korea | <2 | 10 (19.2) | 50 (42.0) | 60 (35.1) | | | | | |
| | 2-<5 | 28 (53.8) | 34 (28.6) | 62 (36.3) | | | | | |
| | ≥5 | 14 (26.9) | 35 (29.4) | 49 (28.6) | | | | | |
| Kind of job | Factory, construction worker | 38 (73.1) | 9 (7.6) | 47 (27.3) | | | | | |
| | Restaurant employee | 2 (3.8) | 31 (26.1) | 33 (19.3) | | | | | |
| | Home maid | 0 | 52 (43.7) | 52 (30.4) | | | | | |
| | Aid for care giving | 0 | 3 (2.5) | 3 (1.9) | | | | | |
| | Others | 12 (23.1) | 24 (20.2) | 36 (21.1) | | | | | |

*Multiple responses.

2.48 (±0.82)점, 「죄책감」이 2.46 (±0.91)점, 「두려움」이 2.36 (±0.82)점, 「적대감」이 2.21 (±0.73)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3). 사회적 지지는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가 3.9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내 주위사람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가 3.94점, '내 주위사람들은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아끼지 않고 칭찬을 해준다'가 3.84점의 순이었다. 반면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기꺼이 마련해준다'가 3.3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 해준다'가 3.38점이었고 '내 주위 사람들은 그들이 직접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을 준다'가 3.50점의 순이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나는 나의 조국과 그곳 사람들이 그림자'가 3.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를 괴롭힌다'가 3.37점, '나는 친척들을 남겨두고 떠난 것이 슬프다'가 3.0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곳 사람들은 나에게 대한 믿음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한다'가 2.1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내 문화의 가치에 대해 비웃는다'가 2.11점, '나는 내가

Table 2. Degree of Participants' Social Support

(N=171)

| Category | Items | Mean | SD |
|---------------------|--|------|------|
| Emotional support | My neighbors always love and take care of me. | 3.67 | 0.94 |
| | My neighbors make me feel welcomed when I get together with them. | 3.94 | 0.82 |
| | My neighbors always listen to my problems. | 3.69 | 0.91 |
| | My neighbors respect me. | 3.79 | 0.92 |
| | My neighbors are reliable and believable. | 3.81 | 0.93 |
| | My neighbors are always concerned about my things. | 3.64 | 0.90 |
| | My neighbors give me courage to decide something when I hesitate. | 3.67 | 0.87 |
| | My neighbors understand my feelings and try to distract me when I feel hurt. | 3.58 | 0.96 |
| | Subtotal | 3.74 | 0.70 |
| Informative support | My neighbors spend time and consult together when I have a problem. | 3.68 | 0.93 |
| | My neighbors explain things to me that I do not understand. | 3.79 | 0.82 |
| | My neighbors give me appropriate advice to understand reality and to adapt to social life. | 3.72 | 0.89 |
| | My neighbors give me information to help find the reason when I have some problems. | 3.61 | 0.86 |
| | My neighbors advise me on how to make a reasonable decision when I have to choose something. | 3.71 | 0.90 |
| | Subtotal | 3.72 | 0.71 |
| Material support | My neighbors always raise funds when I need money. | 3.36 | 1.12 |
| | My neighbors help me indirectly when they cannot help directly. | 3.50 | 0.97 |
| | My neighbors do their best to help me with everything. | 3.73 | 0.95 |
| | My neighbors help me to overcome situations when I have trouble. | 3.76 | 0.96 |
| | My neighbors always give me to something useful when I am in need. | 3.58 | 0.95 |
| | My neighbors help to do my work for me when I am sick. | 3.38 | 1.17 |
| | Subtotal | 3.54 | 0.80 |
| Evaluative support | My neighbors evaluate whether it is right or not when I act on something. | 3.62 | 0.92 |
| | My neighbors make me feel that I am a valuable being. | 3.82 | 0.95 |
| | My neighbors recognize my work and have pride in what I am doing. | 3.76 | 0.94 |
| | My neighbors praise me when I behave in a desirable way. | 3.84 | 0.89 |
| | My neighbors respect me personally. | 3.97 | 0.81 |
| | My neighbors respect my opinion and mostly accept me. | 3.74 | 0.84 |
| | Subtotal | 3.82 | 0.69 |
| Total | | 3.75 | 0.65 |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와 사귀려 하지 않는다'가 2.1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4).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대상자의 성별($t=2.152, p=.033$), 직업($F=2.597, p=.040$), 한국에의 모국공동체 유무($t=-2.899, p=.005$)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F=0.022, p=.995$), 국적($F=0.775, p=.640$), 종교 유무($t=1.039, p=.301$), 학력($F=2.684, p=.072$), 배우자와의 동거 여부($t=-0.509, p=.611$), 흡연 여부($t=1.098, p=.275$), 음주 여부($t=1.545, p=.127$), 한국에 온 기간($F=0.099, p=.905$), 월 소득($t=0.640, p=.529$), 가족과의 연락횟수($t=0.210, p=.834$), 한국인 친구 유무($t=-0.754, p=.453$), 한국인 친구의

수($t=-0.024, p=.981$)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대상자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가 여성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직업에 따라서는 식당 종업원인 경우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가정부인 경우가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한국에 모국공동체가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비해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와의 관계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Table 5).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와 유의한 역 상관관계에 있었다($r=-.270, p=.005$). 즉,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Table 3. Degree of Participants' Acculturative Stress

(N=171)

| Category | Items | Mean | SD |
|-------------------------|--|------|------|
| Sense of discrimination | I am treated in a different way according to the social circumstances. | 2.51 | 1.09 |
| | People have a prejudice against me. | 2.26 | 1.00 |
| | I cannot have many chances to succeed here in Korea. | 2.61 | 1.12 |
| | I feel like I am dealt with unfairly. | 2.42 | 1.07 |
| | My worth is not accepted. | 2.47 | 1.09 |
| | I feel that people like me from a foreign country are discriminated against. | 2.73 | 1.15 |
| | Subtotal | 2.50 | 0.80 |
| Homesickness | I suffer from homesickness. | 3.37 | 1.09 |
| | I am sad that I live in an unfamiliar environment. | 2.50 | 1.01 |
| | I long for my country and people there. | 3.77 | 0.96 |
| | I am sad that I came here leaving my family and friends behind me. | 3.09 | 1.25 |
| | I am usually alone because of my inability in Korean. | 2.39 | 1.06 |
| | Subtotal | 3.00 | 0.66 |
| Sense of hostility | Other people make fun of the cultural values I have. | 2.11 | 0.95 |
| | People in Korea do not say anything but they hate me. | 2.10 | 0.97 |
| | People here do not estimate my cultural value correctly. | 2.53 | 1.01 |
| | People's actions show me their feelings of hatred. | 2.16 | 1.06 |
| | People's language here show me the feelings of hatred. | 2.19 | 1.07 |
| | Subtotal | 2.21 | 0.73 |
| Fearfulness | I worry about personal safety because of a different culture. | 2.41 | 1.00 |
| | I am not safe here. | 2.37 | 1.06 |
| | I avoid outside activity because of fearfulness of the new environment. | 2.31 | 1.07 |
| | Subtotal | 2.36 | 0.82 |
| Cultural shock | I feel uncomfortable in adapting to new foods. | 2.50 | 1.16 |
| | I feel some pain since I came to Korea. | 2.30 | 1.00 |
| | I have a difficult time adapting to the new culture. | 2.74 | 1.09 |
| | Subtotal | 2.48 | 0.82 |
| Guilt feeling | I feel guilty that I came to Korea leaving my family and friends in my country. | 2.70 | 1.19 |
| | I feel guilty that I live a different life style here. | 2.24 | 1.01 |
| | Subtotal | 2.46 | 0.91 |
| Others | I am nervous whenever I try to speak in Korean. | 2.39 | 1.18 |
| | I hesitate to take part in social activity in Korea. | 2.43 | 1.03 |
| | I get angry with the thoughts about people from abroad like me. | 2.65 | 1.19 |
| | I get hurt when people here don't understand my cultural values. | 2.60 | 1.09 |
| | I am daunted because of the cultural background I have. | 2.32 | 1.03 |
| | I feel I am in a low position in this society because of my cultural background. | 2.55 | 1.17 |
| | I do not feel I belong to any group here. | 2.48 | 1.10 |
| | I feel sad when I think of the problems of people from abroad. | 2.94 | 1.16 |
| | I think people do not want to make friends with me because they treat me as foreigner. | 2.15 | 1.01 |
| | I worry about my future because I cannot decide whether to stay here or go back to my country. | 2.55 | 1.18 |
| | Subtotal | 2.49 | 0.69 |
| Total | | 2.52 | 0.65 |

이를 사회적 지지의 범주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범주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적 지지의 범주인 정서적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범주인 차별감($r=-.236, p=.007$), 적대감($r=-.196, p=.029$), 기타($r=-.264, p=.003$), 정보적 지지는 차별감($r=-.207, p=.017$), 적대감($r=-.228, p=.010$), 죄책감($r=-.208, p=.016$), 기타($r=-.250, p=.005$), 물질적 지지는 차별감($r=-.205, p=.019$), 기타($r=-.190, p=.035$), 평가적 지지는 차별감($r=-.212, p=.017$), 문화 충격($r=-.215, p=.015$), 죄책감($r=-.253, p=.004$),

기타($r=-.252, p=.005$)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각 범주와 전체 사회적 지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범주인 정서적 지지($r=-.265, p=.004$), 정보적 지지($r=-.282, p=.002$), 물질적 지지($r=-.225, p=.016$), 평가적 지지($r=-.277, p=.003$)는 모두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범주인 차별감($r=-.210, p=.023$), 죄책감($r=-.216, p=.019$), 기타($r=-.257, p=.006$)는 사회적 지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정서

Table 4. Difference of Acculturative Stress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71)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M | SD | t or F | p |
|------------------------------------|------------------------------|-----|------|------|--------|------|
| Gender | Male | 52 | 2.72 | 0.52 | 2.152 | .033 |
| | Female | 119 | 2.44 | 0.67 | | |
| Age (yr) | <35 | 40 | 2.50 | 0.48 | 0.022 | .995 |
| | 35-<50 | 34 | 2.54 | 0.62 | | |
| | 50-<60 | 67 | 2.52 | 0.70 | | |
| | ≥60 | 30 | 2.50 | 0.65 | | |
| | | | | | | |
| Nationality | Chinese | 125 | 2.49 | 0.60 | 0.775 | .640 |
| | Indonesian | 15 | 2.90 | 0.67 | | |
| | Mongolian | 11 | 2.58 | 0.44 | | |
| | Vietnamese | 9 | 2.57 | 0.30 | | |
| | Uzbekistan | 6 | 2.50 | 0.38 | | |
| | Russian | 5 | 2.38 | 0.30 | | |
| Religion | Have | 63 | 2.47 | 0.62 | 1.039 | .301 |
| | None | 108 | 2.59 | 0.68 | | |
| Educational level | Middle school or less | 60 | 2.35 | 0.66 | 2.684 | .072 |
| | High school | 77 | 2.66 | 0.64 | | |
| | College or higher | 34 | 2.47 | 0.59 | | |
| Live with spouse | Yes | 66 | 2.48 | 0.64 | -0.509 | .611 |
| | No | 105 | 2.54 | 0.65 | | |
| Smoking | Yes | 35 | 2.71 | 0.49 | 1.098 | .275 |
| | No | 136 | 2.53 | 0.68 | | |
| Alcohol | Yes | 47 | 2.69 | 0.45 | 1.545 | .127 |
| | No | 124 | 2.50 | 0.70 | | |
| Number of years of living in Korea | <2 | 60 | 2.52 | 0.68 | 0.099 | .905 |
| | 2-<5 | 62 | 2.55 | 0.60 | | |
| | ≥5 | 49 | 2.48 | 0.69 | | |
| Kind of job | Factory, construction worker | 47 | 2.58 | 0.53 | 2.597 | .040 |
| | Restaurant employee | 33 | 2.69 | 0.70 | | |
| | Home maid | 52 | 2.22 | 0.72 | | |
| | Aids for care giving | 3 | 2.62 | 0.49 | | |
| | Etc | 36 | 2.55 | 0.54 | | |
| Monthly income | 100≤ | 63 | 2.50 | 0.63 | 0.640 | .529 |
| | >100 | 108 | 2.40 | 0.76 | | |
| Contact with family | <5 times | 104 | 2.58 | 0.60 | 0.210 | .834 |
| | ≥5 times | 67 | 2.55 | 0.69 | | |
| Community | Have | 45 | 2.42 | 0.66 | -2.899 | .005 |
| | None | 85 | 2.80 | 0.52 | | |
| Korean friends | Have | 121 | 2.50 | 0.66 | -0.754 | .453 |
| | None | 50 | 2.59 | 0.63 | | |
| Number of Korean friends | ≤3 | 89 | 2.50 | 0.59 | -0.024 | .981 |
| | ≥4 | 82 | 2.51 | 0.67 | | |

적 지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 정도가 낮을수록 차별감, 죄책감, 기타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5.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Table 6).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예측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 국적, 종교 유무, 최종 학력, 흡연 유무, 음주 여부, 한국에 온 기간, 월수입, 가족과의 연락, 한국에의 공동체 유무, 한국인 친구 유무인 일반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정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한 다변수상관계수와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는 한국에 대상자의 모국 공동체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nts' Social Support and Acculturative Stress

(N=171)

| Acculturative stress | Emotional support | | Informative support | | Material support | | Evaluative support | | Social support | |
|-------------------------|-------------------|------|---------------------|------|------------------|------|--------------------|------|----------------|------|
| | r | p | r | p | r | p | r | p | r | p |
| Sense of discrimination | -.236 | .007 | -.207 | .017 | -.205 | .019 | -.212 | .017 | -.210 | .023 |
| Homesickness | -.082 | .354 | -.140 | .108 | -.139 | .117 | -.129 | .150 | .144 | .122 |
| Sense of hostility | -.196 | .029 | -.228 | .010 | -.126 | .160 | -.173 | .056 | -.164 | .081 |
| Fearfulness | -.119 | .172 | -.159 | .067 | -.104 | .234 | -.148 | .094 | -.090 | .331 |
| Cultural shock | -.142 | .104 | -.149 | .086 | -.134 | .124 | -.215 | .015 | -.127 | .169 |
| Guilt feeling | -.165 | .059 | -.208 | .016 | -.163 | .062 | -.253 | .004 | -.216 | .019 |
| Others | -.264 | .003 | -.250 | .005 | -.190 | .035 | -.252 | .005 | -.257 | .006 |
| Acculturative stress | -.265 | .004 | -.282 | .002 | -.225 | .016 | -.277 | .003 | -.270 | .005 |

Table 6. Variable Affecting Acculturative Stress of Participants

(N=171)

| Variable | β | Adjusted R ² | t | p | F | p |
|---------------------------|---------|-------------------------|-------|------|-------|------|
| Having a community or not | -.266 | .151 | 3.197 | .002 | 6.873 | .010 |

가 있는지의 여부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단순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나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다($R^2=.151$, $p=.002$).

논 의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와 영향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도록 돕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국적은 중국인이 125명으로 3/4 (약 75%)을 차지하는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이들의 경우 나이가 많더라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노동력이나 노동기술이 덜 요구되는 음식업이나 서비스업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며(Lee, 2004) 또한 본 연구의 경우 자료 수집 방법에 있어서 편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였으므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지지 정도는 5점 만점에 3.75 (± 0.65) 점으로 중간 정도보다 약간 높아 비교적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Noh (2007)가 국제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결과 3.74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고 있으나 Choi (2008)가 한국체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결과 2.43으로 보통 이하로 나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조선족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를 조사한 Kim, Baik과 Kim (2003)의 연구 결과 다른 연구 대상자들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Lee (200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점수가 3.2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Choi (2006)의 연구에서는 3.49점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사회적 지지 점수가 높게 나온 이유로는 본 연구 대상자의 36.5%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70.9%가 한국인 친구가 있고, 본 연구의 자료 수집 장소가 지역사회 지지가 행해지는 무료건강검진센터인 점 등이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Park (1985)의 연구에서도 종교를 가진 집단이 사회적 지지 점수가 높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사회적 지지 문항에서는 '내 주위 사람들은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준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였다. 이렇게 친밀감 등과 같은 정서적 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Walker 등(1977)이 말하는 사회적 지지의 방향성과 유대강도의 차원을 말해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주 효과와 부차적 효과 중에서 주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소속감 정체감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가장 낮게 나타난 문항은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기꺼이 마련해준다', '내 주위 사람들은 내가 아플 때 나의 일을 대신 해준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Choi (2008)의 연구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돈이나 물건을 주거나 노동을 대신 해주는 물질적 지지가 2.43 (± 0.65)점으로 가장 낮게 나온 것과 일치하고 있는데, Choi, Kim, Byon와 Won (1990)의 연구에서도 용돈과 같은 물질적 지지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지효과가 낮아 정서건강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 형태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에 있어 지지 자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서적 지지의 양뿐만 아니라 지지 형태와 지지의 근원도 중요한 측면(Yoo, 2004)이라 할 수 있겠다.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2.52 (± 0.65)점으로 보통 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Roh (2004)의 연구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평균 2.33점으로 나온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Noh (2007)의 연구 결과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평균 2.67점으로 나타난 것보다는 낮은 점수이다. 또한 한국체류 중국동포가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Choi (2008)의 연구에서는 3.40 (± 0.58)점, Yun (2001)의 연구에서는 평균 3.00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특별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Noh (2007)는 본인의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원이 없는 타 문화권의 배우자 및 집안관계의 생활권 속으로 혼자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 갈등 속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한국체류 중국동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중국문화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유산을 간직하며 살아오다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서 혈연공동체라기보다는 불법체류자로서의 취급을 받게 되자 더 이상 동포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한국정부와 한국인을 저항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극도의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Yun, 2001)으로 생각될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7개 하위영역으로는 향수병, 차별감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적대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Choi (2008)의 연구에서 향수병이 가장 높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하위범주로 분석된 것과 일치하고 있으며 Noh (2007)의 연구에서 문화충격, 차별감, 향수병의 순으로 나온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통 문화적응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로부터의 분리감과 차별감이라고 보고되고 있으나(Noh, 2007), 이는 이주 나라의 특성이나 이주 집단의 유형, 이주자 개인이 가지게 되는 특성, 사회적 지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 한국에 거주한 지 평균 42.1개월이며, 3년 미만인 경우가 55.2%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문화적응 단계인 접촉시기, 갈등시기, 갈등 해결시기 중에서 접촉시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므로 이주 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남겨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심리적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의 경우 성별, 직업, 모국공동체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1997)의 북한 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연구에서 직업을 가진 이주민이 직업이 없는 이주민들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Nwadiora와 McAdoo (1996)의 연구에

서 일을 가진 이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외국인 노동자가 지각하는 동족집단의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진다는 Kim (200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Finch와 Vega (2003)도 이주민의 자조모임 또는 동족친구들과의 만남의 여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추어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국인 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자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지지원이 될 수 있다(Lee, 2004). 따라서 이들이 문화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지지 그룹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한국에 온 기간, 월 소득, 한국인 친구 유무, 한국인 친구의 수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체류기간이 길수록 스트레스 중 문화충격이 더 낮았다고 보고한 Choi (2001)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체류 기간이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Noh (2007)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중 가정부나 파출부가 30.4%로 가장 많아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을 조국에 두고 온 경우가 많으므로 한국에 온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과 친지와 떨어져 있음으로 인한 정서적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수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또한 소득이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유의한 예측요인이 아니라고 보고한 Kim과 Kim (2008)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고 있으며, Kim (2008)의 연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음을 터놓고 개인적인 일을 의논하는 사람으로 85%가 고국친구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한국친구 유무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정도가 낮게 나왔는데, Kim과 Kim (2008)의 연구 결과에서 미혼의 경우가 기혼상태보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가 더 높다고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대학의 재학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준다는 Poyrazli, Kavanaugh, Baker와 Al-Timimi (200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Lee (1996)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한 재한 유학생이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고 있다고 지각한 유학생들보다 문화

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Thomas와 Choi (2006)도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족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는 이주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로 적응하면서 사회적 지지의 상실, 경제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지만, 이주자의 개인적, 사회적 대처자원 중에서 특히 사회적 지지가 이주자의 불안수준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감이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Lee, 2004).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한국에 대상자의 모국공동체가 있는지의 여부로 나타났는데, 이는 Berry, Kim, Minde와 Mok (1987)의 연구에서도 가까운 자국 친구들과 지지망을 가지고 있는 이주자가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 (1987)도 자국인의 지지망은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여 불안과 무기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Kim과 Kim (2008)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연령, 결혼상태가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Kim (2008)의 연구에서 연령별로 50대 이상일 경우 사회적 관계 형성이 낮으며 30대가 가장 많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50세에서 60세가 39.2%로 가장 많으며 평균연령이 47.4세로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형성이 부족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하였으나 그렇지 않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대부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지만 사회적 지지의 효과는 개인이 이용 가능한 자원이 있어도 이를 실제에서 찾지 않거나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도 있다(Choi, 2008).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한 재검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Noh (2007)와 Kim (2008)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사용능력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외에 체류상태, 한국사회 문화에 대한 지식정도 등이 집단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가 있으므로(Kim, 2008)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포함한 반복연구로 의미 있는 영향요인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영향요인인 모국공동체를 이용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즉 모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문화

교류지원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의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의 관계와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증가시키고 이주 노동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이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모국공동체의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성별, 직업, 한국에의 모국공동체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도와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역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주노동자가 새로운 문화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사회적 지지 방법과 모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좀 더 안정되게 한국사회 문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동안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 분야에서 단편적으로 다루어졌으나 외국인들의 유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단순히 이들의 신체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요인들을 포함한 포괄적인 시각을 제공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Berry, J. W., Kim, U.,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 491-511.
- Choi, H. (2008).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and acculturative stress of the Korean-Chinese in their adaptation to the Korean life with focus on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Choi, K. S. (2006). *A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ag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of the female marriage immigra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Choi, T. I. (2001). *Th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ers in*

-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Y. H., Kim, M. S., Byon, Y. S., & Won, J. S. (1990). Health status of elderly person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 307-323.
- Cui, W. X., Jin, S. J., & Oh, K. S. (2005). Self-image and social support of adolescents among the Korean-Chine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1343-1352.
- Finch, B. K., & Vega, W. A. (2003). Acculturative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among Latinos in California. *Journal of Immigrant Health*, 5, 109-117.
- Griffin, J., & Soskolne, V. (2003).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Thai migrant workers in Israel.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7, 769-774.
- Hovey, J. D., & Magana, C. G. (2000). Acculturative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among Mexican immigrant farmworkers in the Midwest United States. *Journal of Immigrant Health*, 2, 119-131.
- Kim, E. J. (2001). *Study on the mental health of foreign labor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H. D. (2003). *A study of migrant worker welf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H. M., & Kim, S. H. (2008). Acculturative stress of foreign migrant workers and contributing factors-Examining the role of social support. *Mental Health & Social Work*, 30, 78-100.
- Kim, O. S., Baik, S. H., & Kim, K. H.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stress, and loneliness in migrant Yanbian Korean work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5, 607-616.
- Kim, S. H. (2005). *The study on the influencing of acculturation stress among foreign migrant workers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 Kim, Y. L. (2008). A study on the social cultural adaptation of immigrant workers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Socio-Historical Studies*, 11, 103-138.
- Kim, Y. Y. (1987). Facilitating immigrant adaptation: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T. L. Albrecht & M. B. Adelman (Eds.), *Communicating social support*. Newbury, CA: Sage.
- Lee, I. S. (2004).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migrant worker's mental health: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J. E. (1996).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self-focus on the self-perception, social support cop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ee, J. H. (2000). *Effects of role strain and social support at work on psychological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Lee, S. R. (1997).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among North Korean defectors residing in South Korea.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5, 209-247.
- Li, J. M. (2003). *A study on mental health quality of life of illegal status Korean-Chinese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Noh, H. N. (2007).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of the Chinese women who got married to Korean men and settled down in Korea-Focusing on the acculturation patterns and social support perceived by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Noh, S., & Avison, W. (1996). Asian immigrants and the stress process: A study of Koreans in Canada.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37, 192-206.
- Nwadiora, E., & McAdoo, H. (1996).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ic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31, 477-487.
- Park, J. W. (1985). *A study to development a scale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Poyrazli, S., Kavanaugh, P. R., Baker, A., & Al-Timimi, N. (2004). Social support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cculturative stress i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7, 73-82.
- Roh, Y. S. (2004). *A study on acculturative stress of the foreign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Thomas, M., & Choi, J. B. (2006).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Korean and Indi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3, 123-143.
- Walker, R. L., Kenneth, N., MacBride, L. R., & Vachon, L. S. (1977). Social support networks and the crisis of bereavement.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1, 35-41.
- Yoo, Y. G. (2004).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orale of the elderly staying at hom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 297-306.
- Yun, Y. J. (2001). *A study of cultural stress on the Korean-Chinese in their adaptation to the Korea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